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6, pp. 65-73,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6.065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연구

박공주[1*], 배영순[1], 손경희[2]
[1]김해대학교 간호학과, [2]동의대학교 간호학과

A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Gong-Ju Park[1*], Young-Sun Bae[1], kyung-Hee Son[2]
[1]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imhae College
[2]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ong Eu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로모형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B시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학과 재학중인 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건강상태, 스트레스였으며,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상태, 건강상태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상태가 낮을수록(β=-,067 *p*=.030), 건강상태가 나쁠수록(β=-.109, *p*=.003)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β=.083, *p*=.013) 스트레스가 적을수록(β=.-213, *p*=.001)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주제어 : 간호대학생, 삶의 질, 스트레스, 수면시간, 건강상태,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path modeling study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 Subject consists of 209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G City.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Variables that directly affect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 were physical condition and stress, and the variable that directly affect stress were monthly income and physical condition. In other words, they were more stressed as the monthly income was lower(β=-,067 *p*=.030) and their physical condition was worse(β=-.109, *p*=.003), and their quality of life increased as they had sufficient physical condition(β=.083, *p*=.013) and less stress(β=.-213,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to improve information support and affectionate support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 Key Words :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 Stress, Hours of sleep, Physical condition, Convergenc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에 있으며, 이 시기에 대학생은 자아정체성의 성취와 부모로부터의 자발적 독립 등의 발달 과업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변

화에 적응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진로 선택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1].

대학생활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와 사고방식, 불규칙적인 식습관 및 취업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전공 관련 공부 및 사회관계, 특히 이성친구 교제 등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있다[2]. 이러한 요인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3]. 또한 대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와 인간관계 등에 대한 적응과정과 학업, 장래에 대한 대비, 미래의 불확실성,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4,5].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추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통제적이고 의존적인 상태에서 가정이나 사회로는 대학생으로서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에 대해 기대 받고 있다[6].

특히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함과 동시에 학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상실습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4], 대학생활과 임상실습 두 가지 차원의 스트레스원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은 타 전공 대학생에 비해 과중한 학업공부와 현장실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습으로 시행착오를 거칠 수 없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7]. 그 결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은 알지만 실습이 두려워지고 대상자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공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9].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간호사가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8,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원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7,12].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면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질 또한 증진 될 것이다[11].

삶의 질은 개인과 그 개인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하는 만족의 정도이며, 객관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삶의 질 만족이 결정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12]. 대학생들은 일반인과는 다소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갖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인지 또한 다르다.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무질서한 생활을 하거나 무리하게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생활의 리듬이 파괴되고,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생들은 생의 주기에서 청소년 후기에 속해 있으며, 육체적으로 성장이 완성되는 시기이나 심리적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로서 이 시기의 삶의 질은 성인이 된 후에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14].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3]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관련된 영향력을 단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경제상태, 수면시간, 건강상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를 중심으로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고 관련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형구축을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방안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1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1.2.2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직접, 간접 영향 계수를 산출하여 요인들간의 인과관계 정도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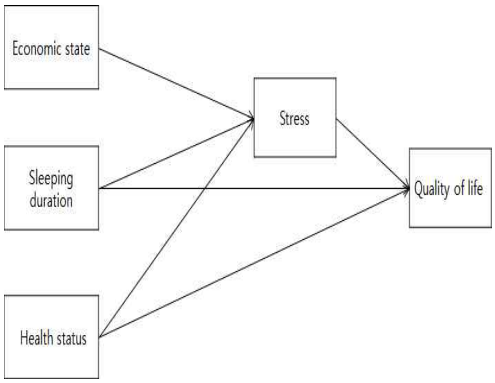
1.2.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경로모형을 제시한다.

1.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외생변수(경제상태, 수면시간, 건강상태)와 내생변수(스트레스), 그리고 결과변수(삶의 질)들 사이의 개념틀은 [Fig. 1]과 같다.



[Fig. 1] Theoretical framework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친는 영향을 규명하고 모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삶의 질을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공변량 구조분석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B시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간호대학 중 총 8개 학교를 의도 표집한 후 학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조 승인을 받은 후 연구 참여 동의성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모형 분석을 하는 경우 일반적 표본의 크기 200명을 단일 기준치로 사용한다[12].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연구분석을 위해 적절한 표본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는 20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태, 수면시간, 건강상태, 스트레스, 삶의 질에 관한 설문지 내용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총 9문항(학년, 나이, 성별, 종교, 수면시간, 가족의 경제상태, 간호학과 지원동기, 건강상태, 전공만족도)으로 구성되어있다.

2.3.2 스트레스

대학생의 스트레스경험 측정 도구는 Yu et al[7]의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59문항이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임상차원스트레스는 실습학생, 실습관련지도자, 실습환경, 실습대상자등 20문항이며, 대학차원스트레스는 학업, 개인 간, 환경, 개인 내 스트레스 등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Likert척도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많이 받는다가 5점으로 점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경험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Yu et al[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이었다.

2.3.3 삶의 질

삶의 질 도구는 Bigot[17]가 표준화한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Index)를 기초로, [18]가 사용한 설문지를 Im[19]이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삶의 질이 매우 안 좋다가 1점, 매우 좋다가 5점으로 점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Bigot[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9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07월 12일~ 07월 30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자가 B광역시와 G시의 3, 4년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하였고, 철회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작은 사례를 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Amos 22.0과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2.5.1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계수를 산출하였다.

2.5.2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모형검증은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법을 사용 하였다.

2.5.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적합지수(카이 검증, χ^2/df, RMSEA), 증분적합지수(NFI, RFI, IFI, TLI, CFI)를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0명(23.9%), 여학생이 159명(76.1%)이었고, 1학년 25명(12.0%), 2학년 58명(27.8%), 3학년 56명(26.7%), 4학년 70명(33.5%)이었다. 경제상태는 200만원 미만 13명(6.2%), 200~500만원 미만 138명(66.0%), 500만원 이상 58명(27.8%)이었다. 수면시간 6시간이하 85명(40.7%), 7~8시간 108명(51.7%), 9시간 이상 16명(7.6%)이었다. 지원 동기는 부모님권유 55명(26.3%), 취업률이 높아서 52명(24.9%),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70명(33.5%), 전문직이라서 23명(11.0%), 기타9명(4.3%)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 32명(15.3%), 보통이다 85명(40.7%), 건강하다 92명(44.0%)이다. 전공만족도는 불만족 16명(7.6%), 보통 79명(37.8%), 만족 114명(54.6%)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9)

	3rd yr	56(26.7)
	4th yr	70(33.5)
Economic state (10,000 won)	≤200	13(6.2)
	≤200-500	138(66.0)
	≥500	58(27.8)
Sleeping duration	≤6hr	85(40.7)
	7~8hr	108(51.7)
	≥9hr	16(7.6)
Application motivation	Inducement by parents or friends	55(26.3)
	For the domestic or overseas employment	52(24.9)
	Aptitude and interest	70(33.5)
	Professional occupation	23(11.0)
	The others	9(4.3)
Health status	Poor	32 (15.3)
	Moderate	85(40.7)
	Good	92(44.0)
Major satisfactun	Dissatisfactuon	16(7.6)
	Moderate	79 (37.8)
	Sstisfaction	114 (54.6)

3.2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 3.0 이하, 첨도는 10.0 보다 적어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209)

변수	평균평점	범위	왜도	첨도
Quality of life	3.66 ± 0.03	1-5	0.73	0.11
Stress	3.07 ± 0.03	1-5	0.54	0.55
Economic state	3.04 ± 0.07	1-5	0.60	0.36
Sleeping duration	1.66 ± 0.04	1-3	0.33	0.64
Health status	3.33 ± 0.06	1-5	-3.51	0.16

3.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9이하로 확인되어 측정변수간의 다중공정성의 문제는 없었다<Table 3>[12].

경제상태는 건강상태(r=.194, p=.005), 스트레스(r=-.182, p=.009)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 건강상태와 스트레스(r=-.223, p<.001), 삶의 질(r=.22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삶의 질은 건강상태(r=.220, p<.001), 스트레스(r=-.270, p<.001)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209)

	Economic state (p)	Sleeping duration (p)	Health status (p)	Stress (p)	Quality of life (p)
Economic state	1				
Sleeping duration	-0.14 (.842)	1			
Health status	.194 (.005)	.028 (.683)	1		
Stress	-.182 (.009)	-.010 (.886)	-.223 (<.001)	1	
Quality of life	.082 (.236)	-.032 (.641)	.220 (<.001)	-.270 (<.001)	1

3.4 가설적 모형의 검증

3.4.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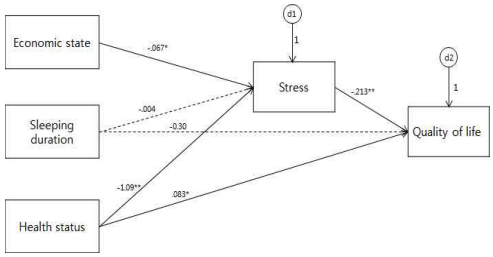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χ^2 =0.0(p<.009), df(자유도)=11, 표준 χ^2(χ^2/df)=.008, RMSEA= .00, RFI= .98, NFI= 1.0, IFI= 1.0, CFI= 1.0, TLI= 1.4로 모든 적합도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하였다 <Table 4>.

<Table 4> Fitness Index for the Hypothetical Modes

Fit Index	χ^2 (p)	dF	CMIN	RMSEA	RFI	NFI	IFI	CFI	TLI
Hypothetical model	0.0	1	.008	.00	.98	1.0	1.0	1.0	1.4
Criteria	p>.05		<3.0	<.05	≥.9	≥.9	≤.9	≥.9	≥.9

3.4.2 가설적 모형의 모수추정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의 분석결과는 총 6개의 경로 중 5개의 경로가 유의하였다. 대학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경제상태(β=-,067 p=.030), 건강상태(β=-.109, p=.003)으로 설명력은 36.5%이었다.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경로는 건강상태(β=.083, p=.013), 스트레스(β=.-213, p=.001)로 설명력은 40.9%이었다[Fig. 2].



[Fig. 2] Path diagram for the hypothetical model.

3.4.3 가설적 모형의 효과분석

본 연구 모형의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직접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한개이상의 매개변수에 매개되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총 효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총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strapping)을 사용하였다[16].

스트레스에는 경제상태의 직접효과(β=-.067, p=.030), 총효과(β=-.067, p=.030)가 유의하였고, 건강상태는 직접효과(β=-.109, p=.003), 총효과(β=-.109, p=.003)가 유의하였다.

삶의 질에서는 수면시간은 간접효과(β=.001, p=.033)가 유의했으며, 건강상태는 직접효과(β=.083, p=.013)가 유의하였고, 스트레스는 직접효과(β=-.213, p=.001), 총효과(β=.21, p=.001)가 유의하였다.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209)

Endogeuous variavles	Exogenous variables	Standardized direct effect (p)	Standardized indirect effect (p)	Standardized total effect (p)	SMC*
Stress	Economic state	-.067 (.030)	-	-.067 (.030)	36.5
	Sleeping duration	-004 (.950)	-	-004 (.950)	
	Health status	-.109 (.003)	-	-.109 (.003)	
Quality of life	Sleeping duration	.030 (.553)	.001 (.033)	.031 (.141)	40.9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 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건강상태, 스트레스였으며, 수면시간은 스트레스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여러 연구들에서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타 대학학생들과 비교할 때 안정적인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점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래문제보다는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1][21].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이행하지 못하므로 제대로된 스트레스 관리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18].

간호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타 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외에 임상실습과 연관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나타나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간호학과 학생의 스트레스에 따른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에 대한 개별화된 중재전략을 위한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22,23]. 또한 간호교육 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여 학생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면 간호대학생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문제를 줄일 수 있고 삶의 질 또한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2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은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지지하여 삶의 질을 예측할 때 개인의 건강상태는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상태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의 연구에서 가정의 경제상태의 효과는 대개 고소득층일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은 아직까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대학생들의 경제수준보다는 전공과목에 관한 학업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원이 증가하며, 적절한 중재를 할 수 없을 경우 욕구상실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겪어 학업성취도를 감소시켜 간호사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입학초기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강상태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건강상태는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은 질병의 위험률이 낮은 집단으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보다 나은 건강문제를 유지하기에 적절한 집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 후 학업 성취와 취업경쟁 및 진로선정문제 등의 부담감을 경험하여 건강상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28].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건강상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30,31]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상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수면시간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1]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부족한 수면시간은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부족한 수면시간은 삶의 질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4]의 연구에서 수면시간은 대학생의 삶의 질과 상관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적절한 수면을 취한 대상자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두통이나 무력감과 같은 증상이 학생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면이 신체적 피로나 감정적 피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낮 시간동안의 적절한 활동력이 저

하되며,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과와 관련 된다. 학생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학생의 적절한 수면을 취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와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스트레스였으며,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제상태, 건강상태로 확인되었다. 즉, 경제상태가 부족할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국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삶의 질 증진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다루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연관된 매개 효과를 지닌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 H. Ha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preparation capacity and stress from college lif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7, No. 1, pp. 81-86, 2017.

[2] S. R. Lee. “The Convergence Study of Self-Management and Self-efficacy on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311-320, 2016.

[3] M. H. Nam, H. O, Kim,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263-273, 2016.

[4] M. H. Nam, M. R. Le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363-374, 2014.

[5] M H. Kim, J, R, Chun, S, A, Hong. “Factors of Family Function and Self-efficasy Influencing Old Patient's Decision of Advance Directives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23-129, 2016.

[6] B. Y. Kang, (The) causes of social stress and way of coping with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Konkuk University, Ph. D. thesis, 2003.

[7] J. S. Yu, S. J. Jang, E. K. Choi, J. W. Park, “Development of a Stress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8, No. 3, pp.410-419, 2013.

[8]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15-122, 2016.

[9]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2016. https://doi.org/10.15207/JKCS.2016.7.4.075

[10] S. J. Park, B. J. Park,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1, No. 4, pp.313-322, 2013.

[11] Y. S. Song,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 pp 71-80, 2012.

[12] C, Gibbons, M, Dempster, & M, Moutray, “Index of sources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5, No. 5, pp.1095-1102, 2009.

[13] M, W, Jeou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quality of lif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h. D. thesis, 2003.

[14] H. O. Hwang,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Life Quality of Physically Disabled Women. Daegu University, Ph. D. thesis, 2010.

[15] J. A. Lee, H. S. Lee, “A study on quality of life among college stud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15, No. 2, pp.1-12. 1998.

[16] J. P. Woo, “The Study of Mediated Moderating Model and Moderated Mediating Model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gression: Focusing on Satisfaction, Trust, Dependence and Commitment", Journal of Product Research, Vol. 33, No. 4, pp.45-56, 2015.

[17] A. Bigot, “The relevance of American life satisfaction indices for research on british subject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Age and Ageing, Vol.3, No.2, pp.113-121, 1974.

[18] S. M. Hur,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n the Quality of Life and Self-concept in the University Students, KyungHee University, Ph.D. thesis 2006.

[19] A. R. Im,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Leisure Motivation on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Dankook University, Ph.D. thesis, 2012.

[20] P. E. Shrout, &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4, pp.422-445, 2002.

[21] N. Y. Kim,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tres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nkun University, Ph. D. thesis, 2011.

[22]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https://doi.org/10.15207/JKCS.2014.5.3.029

[23] G. S. Oh, M. K. Lee,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73-185, 2015. https://doi.org/10.15207/JKCS.2015.6.5.173

[24] M K. Ryu, K. M. Park, J. N. Kim,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college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25, No. 1, pp.29-42, 1999.

[25] J. Y. Park, N. H. Kim,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ctivity,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No. 1, pp.153-165, 2013.

[26] J. H. Kim, H. S. Oh, “Health Life Behavior and Perceived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Vol. 14, No. 3, pp.207-216, 2004.

[27] 양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23-33, 2014.

[28] J. H. Park, The Study of Stress on Clinical Practice, Somatic Symptom, and Self-Disclosure of Nursing Student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h. D. thesis, 2008.

[29] K. s. Han,, “Self 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3, pp.585-592, 2005.

[30] K. H. Oh, The Relationship v\between Life Stress and Physical/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 Sahmwook University, Ph. D. thesis, 2009.

[31] E. H. Lee,,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9, No. 1, pp.25-52, 2003.

[32] E. H. Hwang, K. H. Kim, S. J. Shin, “The Effect of Life Stress, Sleep Quality,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Nursing Students",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1, No. 3, pp.239-248, 2016.

[33] M. S. Lee, K. S. Kim, M. K. Cho, J. W. Ahn, S. Kim,, “Study of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1, No. 2, pp.125-134, 2014.

[34] S. H. Ryu,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Sleep in Medical College Students", J.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Vol. 15, No. 1, pp.29-36, 2009.

저자소개

박 공 주(Park Gong Ju) [정회원]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학, 기본간호학, 건강

배 영 순(Bae Young sun) [정회원]

- 2009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김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학, 아동간호학, 건강

손 경 희(Son Kyung Hee) [정회원]

- 2005 ~ 2007 : 동의대학교 여성암통합관리연구소 소장
- 2007 ~ 2007 : 부산시 인적자원개발원 실버전문인력양성사업 참여
- 2008 ~ 2009 : 부산시 금연지역 자문 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
- 2008 ~ 2010 : 한방실버웰니스 사업단 참여교수
- 2006 ~ 현재 : 한국간호교육학회 이사, 심사위원
- 2009 ~ 현재 : 부산시 부산진구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위원
- 2009 ~ 현재 : 부산시 동래구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위원
- 2011 ~ 현재 : 부산 의료관광 자문위원
- 2012 ~ 현재 : 동의대학교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단(RIS) 단장
- 2013 ~ 현재 : (사)한국지역특화산업협회 이사
- 2014. 12. : 2014 지역희망박람회 지역특화상품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1997 ~ 현재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학, 정신간호학, 헬스케어